

Column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글·안 병 문 |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

지난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사립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2004 국제헬스케어 회의(International Healthcare Conference 2004, IHS 2004)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선웨이 피라밋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의 자격으로 협회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올해 열두번째로 개최되는 IHS 2004는 말레이시아의 사립병원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며, 말레이시아 보건부, 아시아병원연맹과 말레이시아 의사협회의 후원을 받는다.

올해의 주제는 ‘오늘의 병원경영 (Managing Today’s Hospital)’이었으며, 부제로서 병원의 인적자원 활용문제, 병원경영에서의 리더십(의사, 간호사 및 행정가 부문)의 개발, 병원의 마케팅과 홍보전략 등이 각각 별도의 세미나실에서 심도있게 발표되고 토의되었다.

개막 첫째날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이 공식 개회선언과 함께 약 45분간 기조연설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 장관이 직접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 연설이 5분 이상을 넘지 않으며, 내용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립병원의 역할, 민간병원의 역할, 의사와 병원행정가들이 전년도에 이룩한 업적, 계획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한 과제 등을 전년도 통계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하고 때로는 치하하고 격려하며, 정부의 요구사항도 수치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이 나라는 의료기관의 약 80%가 국공립의료기관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100여개 민간병원들인데, 기본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차별화된 고급의료를 원하는 중산층들은 주로 민간병원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아직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고급의료는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주로 민간보험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체

의 20%밖에 되지 않는 민간병원이지만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 자신이 의사이고(말레이 연방은 13개의 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중 9개 주의 술탄들이 교대로 국가의 영수가 되므로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보건부 장관과 재정부 차관이 역시 의사로서 내각에 의사가 세 명씩 있다고 한다.

세미나실의 옆에는 큰 홀이 준비되어 간단한 스낵이 제공되었고, 40여개의 전시실에서 각각 의료 관련 산업체의 전시, 홍보를 하였다. 필자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민간 병원들(주로 고급병원들)이 자체 병원의 전시공간을 전시실안에 내어 전시실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중 입구 전면에 작은 방 4개 규모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의료기 회사도, 말레이시아의 병원도 아닌 옆 나라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종합병원(Singapore General Hospital)이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 봤더니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놀랐다.

40여개의 전시실 중에 유일하게 한국 업체가 하나 있어 그곳에 들렀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의료기 회사가 아니고 수술가운을 제작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은 회사였다. 한국인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 원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복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반도체는 미세한 먼지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되므로 작업복은 극세사로 제작된다고 한다. 열에도 강하여 오토클레브를 수백회하여도 견디므로 수술복이나 의료용 가운에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역관리에서 동포를 만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여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은 매일 들렀다.

컨벤션 마지막날 병원 견학이 있었다. 마침 싱가포르 래플즈병원의 이사인 닥터 프램도 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같이 가게 되었다. 선웨이 메디칼 그룹(Sunway Medical Group)은 약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의사 수나 외래의 크기와 취급하는 질환의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은 물론 어느 선진국 병원에 못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병원의 특실입원비가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필자가 싸다고 하였더니, 자기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료를 제공하므로, 말레이시아 국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같은 인접 국가들로부터도 환자들 많이 온다고 자랑하였다. 옆에 있던 닥터 프램(그는 인도 파키스탄계 싱가포르인으로 싱가포르의대를 나왔)은 자기 병원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진료의 질이 훨씬 우수하므로 말레이시아에서 오히려 자기네 병원으로 더 많이 온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재미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의 시설면이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우리나라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본받을 점이 많이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마침 이 곳에 온 김에 평소 친분이 있는 싱가포르 래플즈병원 원장인 닥터 루를 만나러 싱가포르에 들렀다. 2차대전 후 말레이연방에서 분리 독립하여 따로 국가를 세운

싱가폴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다. 서로 가까운 지역에 불교사원과 이슬람사원이 혼재되어 있고, 말레이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인도차이나를 망라한 넓은 지역을 다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도시국가이다. 좀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도시상업국가이다. 마치 예전의 찬란했던 카르타고나 알



▲ 래플즈병원 원장실 앞에서 닥터 루, 닥터 프램과 함께(좌로부터 필자, 닥터 루, 닥터 프램)

렉산드리아가 세월을 뛰어 넘어 멀리 동쪽으로 가까이로는 동서교역으로 명멸했던 중앙아시아 사막 지대 실크로드의 옛 도시국가들이 남쪽 바닷가로 내려와 앉은 느낌이다. 이미 쿠알라룸푸르에서 닥터 프램과 같이 지낸터라 래플즈병원은 처음이지만 낯설지가 않았다.

래플즈병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삼쌍둥이 수술로 잘 알려져 있는 병원이다. '사랑과 지혜' 라는 쌍둥이의 이름은 이 병원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지은지 4년 되었다는 래플즈병원의 외관은 우리나라의 소위 일류병원보다 더 거창하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닥터 프램이 필자를 동반하고 다니며 설명하듯이 하나 하나가 다 깊은 사려 끝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래플즈병원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곧 '환자중심' 이라는 것이다. 말로만 '환자가 중심' 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실제로 환자, 즉 의료소비자를 그 사고의 핵심에 놓고 병원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병원 구석구석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환자가 비를 맞지 않고 쾌적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된 도어웨이(애플런스도 이곳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라든지, 환자들이 편한함을 느낄 수 있고 발걸음이 피곤하지 않게 제작된 카펫 바닥(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특수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여 병원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등은 물론, 내과와 외과가 크게 둘로 나뉘어 내과, 피부과 등 내과적 성격을 갖는 과들은 가운데의 홀을 공유하는 한 지역으로,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외과적 성격의 과들은 역시 같은 지역으로, 홀을 사이에 두고 환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환자를 두고 함께 의논하며 진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단지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 이렇게 함으로서 치료성적의 향상이라는 보다 큰 성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향으로 가는 길 내내 눈앞에
떠오르는 닥터 루와 닥터 프랭
의 “우리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환
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웃는 모습이 같
은 대륙내에서 같은 시대를 살
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
버랩되어 못내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필자가 다녀본 병원으로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엠디 앤더슨 암센터가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계 최고의 암 치료성적을 내고 있다. 래플즈병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무척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어 졌으며, 다녀온 사람들도 많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곳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

래플즈병원은 ‘래플즈메디칼그룹’이라는 의료지주회사에서 운영하는 통합의료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는 중심병원으로서 이 회사는 약 60여 개의 1차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대부분의 일반 질환에 대한 진료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들로부터 환자를 의뢰받아 치료해주고 다시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의료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료수가도 턱없이 비싸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높으며 원가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서 말한 환자를 가운데 두고 각기 다른 전공과목의 전문의들이 서로 상의하여 통합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수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각기 다른 병원들끼리 똑같은 진료수가에 묶여 있는 것도 사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3차진료기관인 대부분의 대학병원) 이렇게 넷으로 진료수가가 분류되어 같은 종류의 진료기관들끼리는 수가가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2차진료기관인 병원들끼리도 의료수가가 각기 다른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원마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의료수가를 공시하고 정부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승인하여 최종 의료 소비자인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어서 병원 자체로는 수가를 올리는 건 고사하고 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어서 환자들이 일부 병원에만 몰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그네들의 주장은 공급자인 병원이 수가를 제시하고 소비자인 환자가 비용과 효율을 고려한 선택을 하며, 정부가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대신에 중재를 하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가 삼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정부와 의료인(주로 병원 경영 전문의)들이 같이 협의하여 만들고 운영한다고 한다.

래플즈병원의 원장인 닥터 루는 정부의 의료정책위원회의 중요 직책을 맡아 직접 정책을 개발하기도 한다고 하여, 의료인이 주요 개혁 대상으로 전략해 있는 우리와 많은 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레플즈병원에는 인근 국가에 상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재퍼니즈 클리닉(그들이 부르는 대로 표기하였음)이 있었는데 두 명의 일본인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을 위하여는 국제진료센터에 한국어 안내서가 있을 뿐이었다.

대화 도중에 필자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 전문의가 부족하여(인도네시아는 아직 의료수준이 우리보다 열악하다) 교민들의 진료를 위하여 양질의 한국계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닥터 루와 닥터 프램은 자기들이 한국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지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매우 적극적이라 깜짝 놀라서 반문을 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환자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레플즈병원은 9.11사태 이후 미국내에 이슬람국가의 환자들이 들어가서 치료받기가 힘들어졌으니, 그 사람들을 싱가포르 유치하여 치료해 주면 여비도 절감할 수 있어 좋지 않느냐고 하며 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멀리 중근동까지 아시아 전체를 자기들의 의료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비행기 시간에 여유가 있어 마침 쿠알라룸푸르에서 소개 받은 싱가포르종합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말이 종합병원이지 이것은 조금 과장을 하자면 병원 도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컸다. 택시기사에게 싱가포르종합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더니 종합병원 어디에 가느냐고 하여 병원입구에 내려 달라고 했다. 택시기사가 어느 입구냐고 반문하여 왜 그러느냐고 하니 그 병원이 워낙 커서 여러 의료센터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보니 병원 자체가 하나의 큰 타운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안에 국립 암센터, 국립 심장센터, 국립 의과대학병원, 국립 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이 다 있었다. 아마도 이 전체를 통합하여 싱가포르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병원도 그 많은 센터들마다 청결함은 물론이고 내부가 환자들과 내방객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까지 쾌적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시내를 들어서니 시내 중심부에 싱가포르경영대학교(Singapore University of Management)가 건설되고 있었으며, 국제적 규모로 곧 개교한다고 써 있었다. 우리는 경영이 학과 수준이거나 잘해야 종합대학내에서 대학원 수준인데 이들은 경영을 종합대학교 수준으로 크고 넓게 보고 이끌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눈앞에 떠오르는 닥터 루와 닥터 프램의 “우리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웃는 모습이, 닥터 루와 같은 우수한 민간병원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의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멀지 않은, 같은 대륙내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어 못내 씁쓸함을 지을 수가 없었다.  2004